

TwoWings 1500 vision

두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예일교회

담임목사 **강승신**

경기도 부천시 지봉로56

전화 032.345.8031-2

팩스 032.345.8033

홈페이지 www.ylch.org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일교회



큰날개 주일예배

	전통예배 오전 9:00	축제예배 오전 11:00	젊은예배 오후 1:30
찬양과 경배	예배로의 부름 찬양 15장	예배로의 부름 찬양 약한 나로 강하게	노피어 찬양단 찬양 그이름 아름답도다
고백과 헌신	교독문 13. 시편 23편 신앙고백 찬송 191장 기도 이선희 집사	기도 강미령 권사 성도의 교제	기도 한상의 형제 광고 및 환영
말씀과 결단	<p>사도행전 27장 14~26절 (신약 235)</p> <p>집요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힘</p> <p>설교 담임목사</p>		
축복과 파송	봉헌 406장 축도 담임목사	봉헌 주님 뜻대로 축도 담임목사	봉헌 목마른 사슴이 축도 담임목사 나눔과 교제

공동체예배 15:00	3월 예배위원	
가정 예배	[다음주 기도] 전통예배 나승미 집사 축제예배 이상철 집사 젊은예배 고진희 간사	[봉헌] 전통예배 김문숙 김영미 축제예배 김성국 장성운 김미정 김화심 최현순 젊은예배 박해인 최민선
수요기도회 19:30	4월 봉헌위원	
가정 예배	[전통예배] 김영숙 박선희	[축제예배] 박용수 임경진 김영미 김은희 남순자



오늘의 말씀

집요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힘

[사도행전 27장 14~26절]

첫째, 고난 중에도 ()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이 확신이 ()의 확신이 되게 해야 합니다.



작은날개 목장나눔

사명자를 도우시는 분

[에스라 7:12-28]

W

WELCOME

환 영

..... ICE BREAK를 해봅시다.

W

WORSHIP

경 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 이 시간을 성령님께 의뢰하며 기도합니다.

W

WORD

말 씀

내가 경험한 뜻밖의 행운은?

- 딱지나 벌금을 피했어
- 틀린 줄 알았는데 맞았는데
- 경품 당첨, 오예!
- 좋아하던 이성에게 고백받음
- 뽑기 운 대박!
- 피곤해 죽겠는데 내 앞에 자리가 남
- 기타

Q

QUESTIONS

질 문

1. 아닥사스다 왕은 누가 예루살렘에 갈 수 있다고 말합니까?(13절) 무엇을 지원해줍니까?(15-16절, 19-20절, 24절)
2. 왕이 에스라에게 명령한 것은 무엇입니까?(25-26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27절) 또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28절)
3. 하나님께서 에스라와 유다 민족을 위해 행하신 일 가운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 뜻을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를 보내심(13절).
 - 물질을 채워주심(15절).
 -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을 열어주심(19-20절).
 -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심(25절).
 - 믿음에 따라 살 수 있도록 훈육하시고 징계하심(26절).
 -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 주심(27절).
 - 사람들에게 은혜를 얻게 하심(28절).
 - 능력과 은사를 주어 감당하게 하심(28절).
 - 기탁:
4.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에스라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나눠보고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W

WITNESS

증 거

이번주 행복모임의 진행현황과 베스트와의 관계맺기에 대해서로 나누어 봅시다.

W

WORK & PRAYER

기 도

돌봄이 필요한 목장가족이 있는지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 1) 문제를 맡기며 기도
- 2) 베스트와 행복모임을 위해 기도
- 3) 치유와 성령충만을 위해 기도
- 4) 축복기도



간증나눔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

- 청년 B-4목장 박진경 자매 -

안녕하세요. 이번 A팀으로 인도 아웃리치에 다녀온 청년B-4목장 박진경 청년입니다. 저는 작년 필리핀 아웃리치를 처음 다녀오고 이번에는 인도 아웃리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인도아웃리치를 신청할 때 만해도 내가 갈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이 제일 앞섰습니다. 그러나 기도응답으로 인도아웃리치를 신청한 모두가 함께 갈 수 있게 해주심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작년 필리핀 아웃리치를 처음 갔을 때 많은 기도와 준비를 하지 못한 채 다녀왔기에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도아웃리치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가 되어 복음을 전하게 될 영혼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아웃리치를 준비하면서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아웃리치 준비를 위해 매주 정해진 시간에 모여 퍼포먼스 연습과 인도 강의를 듣는 과정에 있어서 다함께 잘 모이지 못했습니다. 각자의 상황을 알 수 없었기에 힘들었지만 이 마음을 그대로 오직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모든 상황이 어렵지 않도록 또한 같은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서로 도고하며 더욱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교회에서 출발할 때부터 인도에 도착할 때까지 너무나도 설렐었습니다. 인도에서 만날 팀원들과의 연합선교와 어떠한 예비 된 영혼들을 만나게 될지가 가장 기대되었습니다.

인도에서 첫 전도를 나가는 날, 두려움과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이 인도 땅에서 전도할 때 두려움이 없도록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로 비전이 하나되는 좋은 팀원들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첫날 인디안 파크에서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공원에 도착하자마자 잔디밭에 앉아 있던 두 자매들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관계가 자연스레 바로 열렸고 두 친구들은 적극적으로 복음을 듣고 동전비유와 영접기도까지 따라해 주었습니다. 현지 사역자의 도움을 얻으며 대화를 이어갔고 바로 자연스레 행복모임까지 초대하였습니다. 저희 팀은 2인1조로 흠어져 백지전도를 통해 전도 된 친구들을 모두 데리고 다함께 약속된 장소에 모여 행복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잔디밭에 모두가 열린 마음으로 동글게 앉아 찬양하고 서로 축복하며 복음을 누리니 모두가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행복모임을 인도하는 현지 사역자의 모습이 너무나 귀해 보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 나라와 언어, 장소는 다르지만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함께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행복모임이 끝난 후 저희 팀은 이날 함께한 현지인 친구의 가정 심방을 갔습니다. 이 친구의 이름은 푸자인데 인도 델리교회에 다니는 친구의 전도를 통해 교회에 정착하여 훈련과 양육으로 세워져 귀한 일꾼으로 교회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잘 사는 상위층 가정인 친구였지만 가정을 직접 방문하니 작은 집에서 많은 동생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어린 동생들을 챙기고 주어진 생활을 하며 교회 사역을 감당하는 푸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일꾼으로 세워져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있는 모습을 통해 저 또한 다른 영혼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일꾼을 세우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우리 팀원들을 둘러앉아 푸자가 하나님을

만나며 변화하게 된 이야기를 듣고 기도제목을 나눴습니다. 푸자의 기도제목은 아버지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아프신 어머니를 위한 기도, 동생들의 기도였습니다.

다. 우리 팀 모두가 합심해서 이 가정을 위해 눈물로 뜨겁게 기도하였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푸자를 통하여 일하시고 이 가정을 축복해주시며 지켜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모든 일정이 다 끝난 후 저희 팀은 금요일 저녁에 델리 두날개교회를 방문했습니다. 협소하지만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과 예배를 준비하는 방, 숙식을 챙기는 곳 그리고 집이 먼 사역자들이 잘 수 있도록 침구가 구비된 방도 있었습니다. 이 작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며 훈련을 받아 일꾼이 세워진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이뤄지는 것에 감격스러웠습니다. 우리는 모두 동그랗게 모여 델리 두날개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 예배하며 건강한 현지 사역자들이 세워지기를 위해 통성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델리 두날개교회를 통해 이루실 놀라운 역사를 확신합니다.

마지막 초청주일날 정말 울지 몰랐는데 전도한 친구들이 와주었습니다. 저희는 예배에 오는 모든 사람들을 기쁜 마음으로 축복하고 환영하며 함께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엄숙하고 진실하게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참 행복하고 평안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느새 제 마음은 영혼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찼습니다. 델리 두날개교회의 비전을 꿈꾸며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이 마음 그대로 헌신의 밤 때 하나님께 '저도 복음의 통로로 쓰임 받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미 헌신했던 모두가 다시 한번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가장 큰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제일 컸습니다. 부족하

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며 준비된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길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나라와 인종, 언어, 환경에 상관없이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일상으로 인해 바빠 굳어있던 마음이 사랑으로 다시 치유되고 회복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셨던 아웃리치 기간 동안 모든 시간이 아름다웠고 이렇게 짧은 시간동안 연합하여 많은 영혼들을 만나 전도하고 사랑하며 행복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돌아와 아웃리치 기간 동안 받은 은혜와 주신 사랑으로 전도하며 행복모임을 인도하게 될 때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싶습니다. 환경과 상황이 어려워 마음이 힘들 때에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매일 매일 감사와 행복이 넘쳤던 아웃리치의 시간을 또 다른 사람들이 함께 하길 소망합니다. 아웃리치 기도 짝과 성도님들의 기도에 힘입어 행복하게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여러 상황과 환경 속에서 인도자와 영적 아버가 되어주신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모든 삶속에서 함께하시고 여전히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선교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목회칼럼

가장 위대한 승리의 함성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 말구유에 누우실 때부터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까지 33년을 사신 것이 예수님의 지상생애였습니다. 공자나 석가에 비해 반도 못살았습니다. 그것도 인간으로는 가장 처참한 죽음으로 삶을 마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짧은 생애가 세계의 역사를 뒤집어엎었고 수많은 사람을 변화시켰습니다. 지금도 변화되고 있고 앞으로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가장 아름다웠고 가장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면서 위대한 승리를 거두고 있습니다. 스테반도 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스테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초대교회의 일곱 명의 대표적 일꾼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아 흥분해서 돌로 쳐 죽일 때 그는 위대한 승리의 함성을 외쳤습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다.

그는 돌에 맞아 죽는 순간까지 하늘을 우러러보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믿음은 어려울 때, 환난과 위험이 닥쳐올 때 하

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스테반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이 사건을 현장에서 지켜본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행 20:24)고 고백하였습니다. 성도는 삶의 환경이 변하고 달라져도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믿음에 파선하면 아무것도 건질 것이 없는 인생 실패자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죽음 앞에서 천사의 얼굴처럼 빛났던 것은 그 속에 사랑이 가득하였기 때문입니다. 한국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최권능 목사는 「내 속에 그리스도가 가득하여 건드리기만 하면 예수 천당이 나온다」라고 하였습니다. 사람 속에 염려, 근심, 미움, 시기, 질투, 원망, 악독이 가득하면 세상을 온통 어지럽게 만듭니다. 사랑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스테반의 가슴 속에는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돌을 들어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행 7:60)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스테반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한 승리였습니다. 완력이나 미움으로는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황해도 봉산교회의 4명의 장로님이 순교하였습니다. 강덕기 장로님은 나무에 묶어 놓고 두 눈을 뽑았습니다. 그는 “두 눈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했는데 이제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국군이 복진할 때 인민군들이 얼굴을 가격하여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마침 동네 청년들과 국군이 범인을 잡아 나무에 묶어 놓고 강덕기 장로님 아들에게 맡겼습니다. 아들은 “내 아버지의 순교를 헛되게 할 수 없다”며 범인을 풀어주었습니다.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위기 속에서 구원해 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영원한 하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에 자기 영혼을 위탁하는 기도였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야 안심입니다. 사람이 위대하지 못하고 큰 일을 못하는 것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영과 육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영이 잘돼야 육이 잘되는 구조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영이 잘되는 길을 말씀

하셨습니다. 스테반도 목숨은 하나뿐입니다. 그런데도 위대한 승리자가 된 것은 그의 영을 하나님 손에 맡겼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사기치고 강도질을 해서라도 잘 먹고 잘 살아야 하겠지만 영이 잘되지 않으면 육이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급하고 어려워도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영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고 매순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고 안전하게, 든든하게 삶의 현장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금주 도고기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한 기도

1. 담임목사님을 위해서

- 성령충만하여 2020년을 힘있게 이끄시게 하시고, 흔들림 없는 비전과 영력과 지치지 않는 체력을 허락하여 주소서.
- 목사님에게 영적 담대함과 민감함을 허락 하시어 언제나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소서.

2. 봄 사역을 위해서

- 봄사역이 준비중에 있습니다. 양육과 훈련, 행복모임이 성령충만함과 기도로 잘 준비되어 봄사역이 힘있게 시작되게 하소서.

3. 파송된 선교사를 위해서

- 인도에서 코로나로 인해 한국인 비자를 전부 무효화 처리를 하게되었고, 다시 해외를 나가면 비자를 재발급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현재 선교사들이 관광비자인 상황으로 비자가 안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비자 신청에 있어서 아무 문제 없이 잘 발급되도록 하소서.

성도를 위한 기도

1. 권진희 집사

- 코로나19로 아이들은 개학이 늦어지고 박형훈 집사는 재택근무중인데, 하루 속히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 일상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 민재가 알레르기 비염으로 불편해하는 여러 습관적인 모습들이 있는데, 주님이 만지셔서 치유되어지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 박형훈 집사가 여름아웃리치를 계획하고 있는데, 준비가 잘 되어지고 은혜받는 시간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2. 김지연 자매

- 대학원 학기가 시작되고 학업으로 인해 마음에 분주함이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잘 세워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을 먼저 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 어린이 해피키즈, 행복모임에 성령님의 임재로 가득하게 하시고 열정있는 인도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교회 봄 사역에 더 잘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금주의 감사

- 주의 성전을 사랑하고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 사랑의 주님! 삶의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 예배 드리는 오늘을 감사드립니다. 하루 빨리 자유롭게 예배 드리는 날이 오게 하옵소서.

- 코로나로 인해 예배 드리기 어려운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늘 승리의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 어려움 속에서도 삶을 지키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 늘 풍성함으로 채우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신 것에 늘 감사하게 하소서.



교회 소식

이번주 소식

1. 코로나 사태로 온 나라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난 당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애쓰는 의료진과 공무원들을 위해, 열방의 선교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3,6,9 기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일 3번 (오전 10시 30분, 오후 4시, 저녁 9시), 6개의 기도제목(교회와 비전을 위해서, 담임목사님을 위해서, 봉사역을 위해서, 파송된 선교사를 위해서, 전도지역과 도교기도 지역을 위해서, 이나라와 민족 열방을 위해서)으로 9분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369 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3. 이번주 공동체 예배와 수요기도회도 가정예배로 모입니다.
4. 다음주일은 종려주일입니다. 축제예배 때는 성례식이 진행됩니다.
5. 성례를 위한 교육이 이번주 화요일(3/31)부터 금요일(4/3)까지 진행됩니다. 문답식은 토요일(4/4) 저녁 8시에 진행이 됩니다. 대상자들은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6. 다음주 축제예배 때 한가족 환영식이 진행됩니다.
7. 새 봄 사역이 연기되었습니다. 5월 첫째주에 새봄 사역이 시작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8. 2020 여름 두달개 필리핀 아웃리치가 7월 20일(월)부터 25일(토)까지 진행이 됩니다. 선교에 관심이 있는 분은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이 4월 30일로연기되었습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신청 및 문의 : 유한나 팀장)
9. 1/4분기 사무감사를 위해 각 기관은 장부를 정리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주 봉사

[주방봉사]

주방사역관리 담당 : 정일숙, 황귀순 권사

[청소]

본당 : 여성C-1목장(강애진 목자)

준2층,계단 : 여성D-2목장(나승미 목자)

2층 : 여성B-1목장(김영숙 목자)

3층 : 여성A-5목장(김화심 목자)

비전홀, 멀티룸, 화장실 : 청년공동체

새가족 섬김이

노경자 집사 (섬김이 : 강애진 집사)

홍창의 형제 (섬김이 : 김민수 형제)

박순례 집사 (섬김이 : 장미경 집사)

조광래 형제 (섬김이 : 한상익 간사)

.. 우리교회는 ..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사도행전의 교회처럼 세계비전을 품고

두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한 날개는 전체가 모여 감동적인 축제로 드리는 대그룹의 축제예배이며
다른 한 날개는 소그룹으로 모여 삶을 나누고 성령의 풍성한 은혜를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목장모임입니다.

이 땅에 어둠이 있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있는 동안 그들을 찾아 쉬지 않고 섬기고
복음전하며 구원하여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 앞장서며 열정으로 달려가는 교회입니다.

예 배 시 간

전 통 예 배	주일 오전 9시
축 제 예 배	주일 오전 11시
젊 은 예 배	주일 오후 1시 30분
공 동 체 예 배	주일 오후 3시
수 요 기 도 회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새 벽 기 도 회	매일 새벽 5시
금 요 기 도 회	금요일 저녁 9시 30분
유 아 부	주일 오전 11시
유 초 등 부	주일 오전 9시
청 소 년 부	주일 오전 9시
작은날개모임	목장별 정한 시간

섬 기 는 분 들

담임목사 강승신	장 로 이성근 이승길
전 도 사 장 효진 권요셉	
원로목사 강경원	원로장로 최기준

온라인으로 예일교회를 만나는 방법

스마트폰 QR코드 어플을 사용하세요.

홈페이지 www.ylch.org

모바일홈 m.ylch.org

페이스북 Yeil0691 Church

KT올레TV CH888, 예일교회 검색

온라인 봉헌 농협 351-0446-9239-73(예일교회)



마을버스

51번, 51-2번 (가톨릭대 입구 하차)

시내버스

5번, 12번, 20번, 52번 (가톨릭대 입구 하차)
75번 (역곡 남부역 하차)

시외버스

83번, 88번 (역곡 남부, 괴안동 입구)